

내년 할당관세 101→76개로 줄여...닭고기·계란 가공품 무관세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 입법예고 LPG·LNG, 상반기 내 연장 여부 검토

정부가 내년 76개 품목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물가 부담을 낮추고 반도체, 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다. 다만 가격이 안정된 품목들을 제외하면서 올해보다 적용되는 품목 수가 대폭 줄었다.

기획재정부는 29일까지 내년도 정기 탄력관세 세부 운용계획을 담은 ‘2024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76개 품목에 대해 할

당관세를 적용한다. 다만 내년 할당관세 품목은 올해 101개에서 대폭 줄었다. 지난해(90개), 2021년(92개), 2020년(79개) 등 최근 들어 가장 적은 품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이 안정됐거나 자유무역협정(FTA)을 활용할 수 있는 품목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할당관세란 일정 물량의 수입품 관세율을 40%포인트(p) 범위에서 낮춰주는 제도를 의미한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면 그만큼 관세

부담이 낮아져서 수입품 가격이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

분야별로 보면 산업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석영유리기판(반도체)·리튬니켈코발트망간산화물(이차전지) 등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알루미늄 합금(자동차)·니켈과(철강) 등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분산성염료(섬유)·사료용 옥수수(사료) 등 취약 산업 관련 품목에 대해 연중 0% 할당관세를 지원한다.

또 물가안정을 위해 옥수수·식품용 감자변성전분·커피 등도 할당관세가 적용된다. 조제 땅콩·닭고기·계란 가공품 등은 이번 할당관세 품목에 새롭게 포함됐다. 조제 땅콩(1만t)과 계란 가공품(5,000t)은 상반기까지, 닭고기(3만t)는 1분기까지다.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수급 불안이 우려

되는 액화석유가스(LPG)와 액화천연가스(LNG)와 원유 등 유류 관련 품목들은 내년 상반기 중 지원 규모만 우선 결정하고 하반기 지원 연장 여부는 내년 상반기에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고추장, 황돔 등 13개 품목에 대해서는 올해와 동일한 수준의 조정관세를 적용한다. 조정관세는 특정 물품의 수입 증가로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경우 기본 관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제도다.

시장접근물량(TRQ) 증량은 참깨, 대두 등 13개 품목을 지원하되 올해보다 증량 규모가 다소 증가할 예정이다. 올해 시장접근물량 증량으로 지원했던 조제 땅콩의 경우 최근 가격이 급등해 내년에는 할당관세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인 만큼 시장접근물량 증량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시장접근물량으로 지정되면 저율 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올해와 같은 품목에 대해 운용된다. 다만 최근 시장 규모 확대 추이를 반영해 미곡류 물량 기준만 46만4422t에서 65만4995t으로 상향 조정된다. 특별긴급관세는 수입이 자유화된 농산물에 대해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 가격이 하락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추가로 부과하는 관세다.

이번 할당관세 운용계획은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수요를 바탕으로 사전협의 및 관세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통해 마련됐으며 입법예고 이후 관련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수권기자

“대게 반값에 무료짬 서비스까지” 홈플러스, 메가푸드위크 할인 품목은



홈플러스가 23일부터 29일까지 대표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또는 1+1 판매하는 코

오늘부터 29일까지 대표 인기 품목을 최대 50% 할인 또는 1+1 판매

리아세일페스타 ‘홈 메가푸드위크(MEGA FOOD WEEK)’ 3주차 행사를 전개한다고 22일 밝혔다.

고객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해 홈플러스가 지난 9일부터 진행 중인 대규모 릴레이 할인의 마지막 행사인 만큼 주말 장바구니 인기 품목을 할인가로 만나볼 수 있는 ‘주말특가’부터 ‘홈 김장대전’, ‘미리크리스마스’ 등 다양한 시즌 행사까지 준비했다.

먼저, 제철을 맞아 수율이 좋은 ‘대게(마리)’는 24~29일까지 50% 할인가로 판다. 전점 10t 한정 수량이며 홈플러스 온·오프라인에서 ‘무료 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농협안심한우 전 품목(100g)’과 ‘손질 오징어(마리)’는 23~29일까지 7일간 최대 50% 할인하고, ‘첫 수확한 햇 딸기·지리산 설향 딸기(500g)’는 7대카드로 결제 시 각 2000원 할인해 판매한다.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열리는 마지막 ‘주말특가’에서는 마이홈플러스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미국산 소고기 전 품목’을 최대 40% 할인, ‘완도전복 전 품목’은 50% 할인가에 제공한다.

‘홈 김장대전’에서는 필수 김장 재료를 농협쿠폰을 적용해 20% 할인가로 구매할 수 있다. 적용 상품은 ‘김장용 미나리(500g)’, ‘11브릭스 배(4~6입)’, ‘김장용 생강(500g)’, ‘장년 간마늘(1kg)’ 등이다.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이른 크리스마스를 준비하는 고객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관련 소품과 홈파티 용품을 최대 반값에 제공하는 ‘미리크리스마스’ 행사도 연다.

홈플러스에서 단독 론칭한 미국 월마트 PB(자체 브랜드) ‘홀리데이 타임’과 다양한 크리스마스 필수템은 7대카드로 결제 시 최대 반값으로 만나볼 수 있다.

김희면기자



롯데마트, 리퍼브 상품 인기...1년 새 10배 ↑

2주간 23개 매장서 리퍼브 상품 20% 할인

BMW코리아가 세단과 스포츠실용차(SUV) 모델의 고른 판매를 앞세워 경쟁사인 메르세데스-벤츠를 제치고 수입차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다.

18일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BMW코리아의 올해 지난달까지 판매 대수는 6만4504대로, 벤츠(6만3791대)를 소폭 앞섰다.

BMW의 수입차 시장 점유율은 28.54%를 기록 중이다. 올해 판매된 수입 신차 10대 중 2대 이상이 BMW였다는 뜻이다.

모델별로는 세단이 3만6608대로, 전체 판매(6만4504대)의 59%에 달했다. 같은 기간 SUV는 2만4992대(40%), 컨버터블은 914대(1%) 판매했다.

세단 판매를 이끈 것은 BMW의 간판 격 모델인 5시리즈다. 5시리즈는 올해만 1만7010대 판매됐다.

세부 트림별로 보면 가솔린 모델 520i(8251대)가 5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많이 팔렸다. 특

히 5시리즈는 올해 2017년 이후 6년 만의 플래티넘(완전변경)을 단행, 향후 판매량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BMW 라인업에서 5시리즈 만큼이나 인기를 끈 차는 중형 세단 3시리즈(5890대)였다. BMW는 지난해 3시리즈 7세대 부분 변경 모델을 국내에 내놨다.

내연기관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고성능 모델 등으로 라인업을 알차게 구성한 3시리즈는 전작보다 디자인과 편의사양을 개선해 많은 소비자의 선택을 받았다.

SUV 중에서 가장 많이 팔린 모델은 중형 SUV X4(4583대)로 나타났다. BMW 내부에서 스포츠 액티비티 쿠퍼(SAC)로 부르는 X4는 감각적인 외관과 스포티한 주행 성능이 강점으로 꼽힌다.

가솔린 모델인 xDrive 20i가 3872대로 전체 판매의 84%를 차지했다.

오유나기자



겨울을 알리는 미국 석류

리사 앨런(가운데) 주한미국대사관 농업무역관장과 모델들이 17일 서울 중구 롯데마트 서울역점에서 미국 석류 출시를 홍보하고 있다. 미국석류협회는 이날 국내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 미국산 석류가 동시 판매된다고 밝혔다.

결혼후 내 재산 얼마나 공개?...미혼남녀 54% “전부 다”

“일부 공개” 42.2%·“공개 안한다” 3.8% 나타나

2030 미혼남녀 10명 중 5명 이상은 결혼후 배우자에게 재산 모두 공개하겠다고 응답했다.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2030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실시한 결혼 후 재산관리 관련 설문조사 결과다.

22일 듀오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 과반(54.0%)은 결혼 후 급여를 포함한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에게 ‘모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개’는 42.2%, ‘공개 안 한다’는 3.8%였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부부라도 서로의 재산을 모두 알 필요는 없어서’가 57.9%로 가장 많았다.

결혼 후 원하는 재산 관리 방식은 ‘공동

관리’(32.4%)로 나타났다. 이어 ‘경제 관념이 더 좋은 사람이 관리’(25.6%), ‘각자 관리’(23.2%), ‘아내가 관리’(5.6%), ‘재산 분야 나눠 관리’(5.0%), ‘남편이 관리’(3.8%), ‘상관 없다’(3.8%) 등의 순이었다.

부부가 재산을 공동으로 관리하길 원하는 이들은 그 이유로 ‘함께 모아 효율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56.2%), ‘투명한 재산 관리로 서로를 신뢰할 수 있어서’(16.0%), ‘부부라면 재산 관리도 함께하는 것이 당연해서’(13.6%)를 꼽았다.

반면 재산을 각자 관리하길 원하는 이유는 ‘자유로운 경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서’(39.7%), ‘각자 관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

라 생각해서’(33.6%), ‘부부가 꼭 경제 공동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서’(19.0%) 등으로 조사됐다.

부부의 공동 재산은 ‘공동 명의’(67.8%)로 관리하길 바랐다. ‘각자의 재산 비율 적용’(21.8%), ‘남편 명의’(5.6%), ‘아내 명의’(3.6%) 등의 의견도 있었다.

미혼 10명 중 7명(71.4%)은 결혼 후 배우자가 모르는 개인 비상금을 만들 의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설문조사 업체 마크로밀 엠브레인을 통해 지난달 23~24일 25~39세 연에 경험 있는 미혼남녀 총 500명(남성 250명·여성 25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신뢰수준은 95%에 표준오차 ±4.38%p다.

뉴시스

11월 김장비용 19만1030원...1년 전보다 감소

aT, 전통시장 16곳·대형 유통업체 34곳 조사

이달 김장비용이 배추 20포기 기준 19만1030원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20일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추 20포기 기준 김장비용은 19만1030원으로 전주(19만3106원)보다 1.1% 하락했다. 지난해 11월 평균(21만6358원)과 비교하면 11.7%나 낮다.

aT는 주요 김장재료 14개 품목에 대해 전국 16개 전통시장과 34개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11월6일부터 매주 김장 비용을 발표하고 있다.

김장철 수요 증가에 맞춰 정부의 김장재료 공급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의 김장재료 할인 행사가 겹치면서 14개 중 11개 품목의 가격이 전년 대비 하락했다.

대형 유통업체의 특가 판매 종료 등으로 일부 품목은 전주 대비 가격이 상승했으나, 양호한 기상 여건 지속으로 산지 출하가 확대된 배추는 전주 대비 6.1% 내려갔다. 소금(천일염)도 정부 비축 물량 공급 확대 영향 등으로

품목	조사단위	22년 11월		23년 11월		전년 동월 대비	전년 동월 대비
		평균	최저	평균	최저		
배추	20포기	62,980	68,320	52,040	-17.4	-23.8	
무	5개	12,555	13,075	7,240	-42.3	-44.6	
고춧가루	2kg	59,900	60,756	60,494	1.0	-0.4	
깻잎	1.3kg	14,993	15,561	10,465	-30.2	-32.7	
대파	0.7kg	2,274	2,306	2,804	23.3	21.6	
양파	0.7kg	4,877	4,642	3,898	-21.9	-18.0	
양파	0.8kg	2,299	2,234	1,787	-28.8	-23.6	
생강	0.3kg	3,298	3,245	3,252	-1.4	0.2	
깨	1.4kg	6,236	5,842	5,333	-14.5	-8.7	
떡국떡	0.4kg	5,388	5,604	5,380	-0.1	-4.0	
깨	3개	7,604	7,631	8,089	6.4	6.0	
소금	0kg	14,263	14,293	12,869	-10.2	-10.4	
배추	0.8kg	13,624	13,815	11,634	-14.6	-15.8	
백미	1.2kg	6,127	6,190	5,975	-2.5	-3.5	
연계		216,354	223,514	191,030	-11.7	-14.5	

8.3% 하락했다.

aT에서 조사한 김장재료 구입비용의 상세 정보는 농수산식품정보(KAMIS)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김장재료 품목별 일일 가격과 김장철 주요 할인 행사 정보 등도 볼 수 있다.

이슬비기자